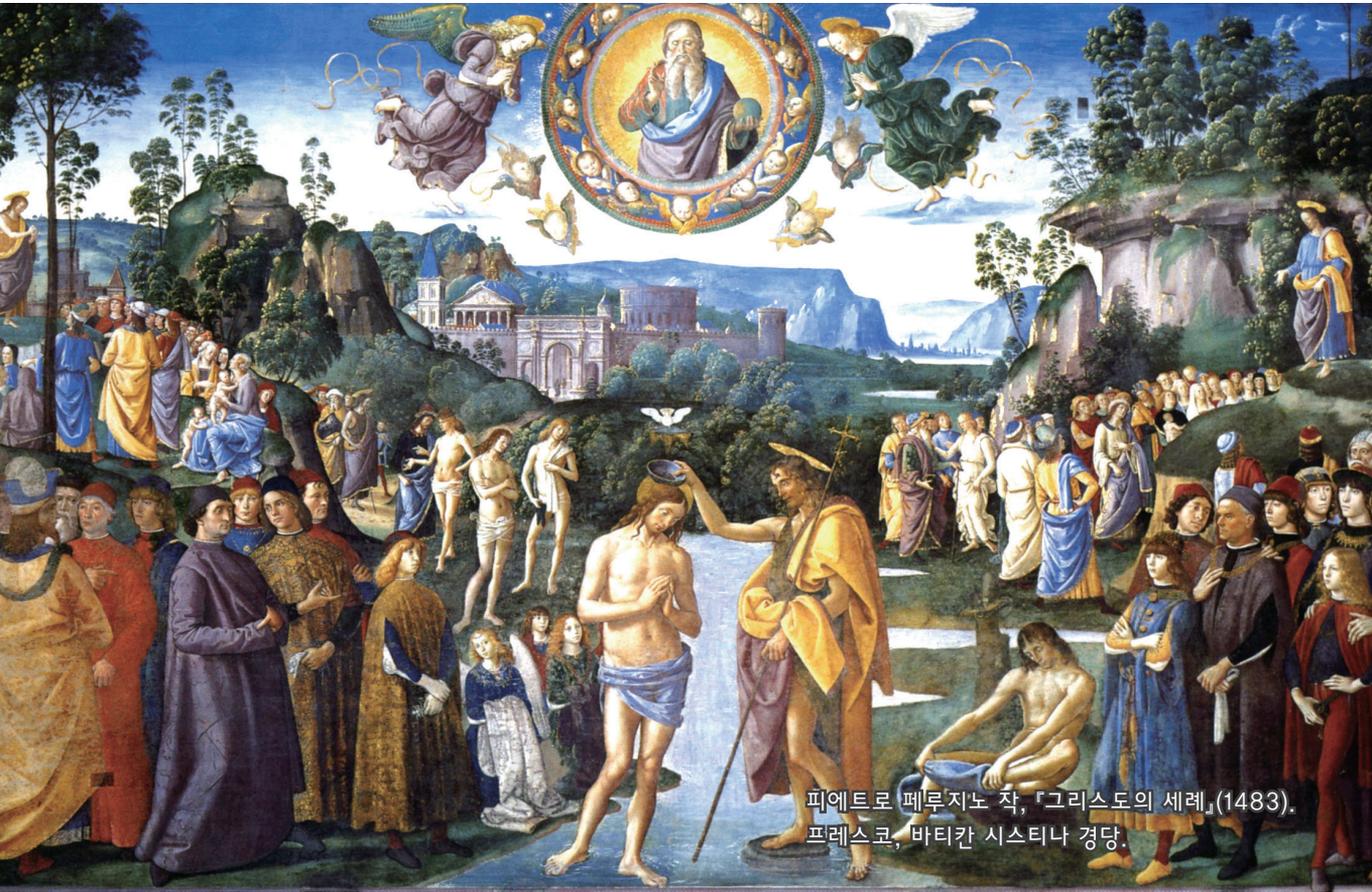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피에트로 페루지노 작, 「그리스도의 세례」(1483).
프레스코,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 오늘의 전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 1,7-11 참조)

공현을 통해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셨음이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기념하는 주님의 세례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죄인을 자처하셨다는 사실을 되새겨줍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 마르 1,7-11

입당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박승재 알로이시오 신부 |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가끔씩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연극이나 영화를 봅니다. 영화나 연극이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주연은 물론이고 조연이나 엑스트라 까지도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온 힘을 다할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열심히 하는 배우들일수록, 관객의 마음을 휘어잡는 배우들일수록 자신의 것을 내 놓지 못합니다. 극 중에서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작가와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 할 때 그 작품이나 배우들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배우가 인기가 있다는 말은 제대로 된 배우라는 말이겠지요.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다 비교하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뜻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

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제대로 된 아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느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가 자신에게 지시하는 감독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겉으로 표현해 내지 못하면 관객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듯이,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세례 축일을 맞아 세례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하게 됩니다. **▶▶▶**

믿음의 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윤중리 가브리엘 | 정평본당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일까?’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뜰의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라는 대답에, 그게 아니라 ‘예, 아니오.’가 가장 어려운 말이라는 게 그 이야기의 줄거리다. 발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판단의 어려움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세월이 많이도 흘러가고, 이제 삶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낱말들 — 봉사, 희생, 사랑, 용서, 관용, 정의, 침묵, 인내……. 이 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사랑’이어야 할 것이다. 어렵지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말 ‘사랑.’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것이 첫째 아니던가? 그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곧 그분에 대한 사랑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인데, 그분을 닮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으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랑’은 ‘미움’의 반대말이다. 미움을 씻어내야만 그 자리에 사랑이 들어앉을 수 있다. 미움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容恕)’일 것이니, 용서는 곧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인 셈이다. 그러니 용서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말이지 싶다.

용서 이야기만 나오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남편의 배신에 증오로 가득 차 피부색이 온통 보라빛으로 변했던 여인의 이야기.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천주교 신자였던 선배의 끈질긴 설득에 드디어 용서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울면서 남편을 용서했고, 보라색이었던 피부가 다시 정상적인 색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도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겠지만, 나도 젊었을 때, 심한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다.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미움의 찌꺼기가 마음의 한 구석에 침전되어 있다.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솟구쳐 올라와서 당황했고, 고해소에서 무릎 꿇기도 여러 번이었으나 정말로 깨끗하게 용서하기란 어렵고도 어려웠다.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미움을 씻어내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용서는 그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다시 새해를 맞으면서, 사소한 알력과 갈등 때문에 섭섭함과 미움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떠난 교우들이 큰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김민**

상처 입은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동철 대건안드레아 신부 | 두산본당 보좌

“어떤 사람이 독 묻은 화살을 맞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친족들이 빨리 의사를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화살을 맞은 사람이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크샤트리야인지, 바라문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또 그 이름과 성은 무엇인지, 그의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 정도인지, 그의 얼굴색이 하얀지 검은지, 어떤 마을에서 왔는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맞은 화살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아야 화살을 뽑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새의 깃으로 장식된 화살인지, 화살 끝에 묻힌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지 알아야 화살을 뽑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아함경 중에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결과로 희망을 얻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독화살을 맞은 이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의 상처에서 독화살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는 독화살을 쏜 사람 찾기에 바쁘니다. 그 사람은 누가 독화살을 쏘았는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상처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할 생각도 하지 않고서 상처의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지고 분노가 격해집니다. 복수하려하고 분노하면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입은 다음의 반응에 의해 그 후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상처치유를 위하여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고 복수를 위해 분노에 찬 삶으로 더욱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서는 사랑을 가져온 상처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1베드 2,23-25) 상처는 그 하나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상처로 번질 수도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필문**

행복이란?



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민복으로 변장을 하고, 저잣거리로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고래등 같은 관료의 집에 다가가자, 인적이 끊어지고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무지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동네 민가 근처에 가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숙종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안으로 들자, 늙은 부모는 아랫목에서 서로 등을 긁어주고 있었고 아들은 윗목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고, 아이들은 등잔불 밑에서 글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세는 누추하기 이를 데 없으나 몹시 행복해 보여 숙종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빛도 갓고 저축도 하니, 이만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숙종이 다시 그 연유를 캐묻자,

“늙은 부모를 모시니 바로 빛 갓는 것이요, 아이들을 탈 없이 키우니 저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귀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에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1월 11일	성 살비오(주교, 순교자, 625년), 성 테오도시오(수도원장, 423~529년) 성녀 호노라타(동정녀, 500년), 성 히지노(교황, 142년)
1월 12일	성 베네딕토 비스코프(수도원장, 628~690년), 성 아르카디오(순교자, 302년경) 성 엘레드(수도원장, 저술가, 1110~1167년), 성녀 체사리아(수녀, 529년) 성녀 타시아나(순교자, 230년경)
1월 13일	성녀 글라피라(동정녀, 324년), 성 베르노(수도원장, 927년) 성 힐라리오(주교, 교부, 교회학자, 320~368년경)
1월 14일	성 다시오(주교, 552년), 성녀 마크리나(개종자, 270~340년), 성 펠릭스(신부, 증거자, 260년경)
1월 15일	성 마우로(수도원장, 580년경), 성 바오로(은수자, 230~342년경) 성녀 세쿰디나(동정, 순교자, 250년) 성 마카리오(수도원장, 은수자, 300~390년) 성 보니토 (주교, 710년), 성 아놀드 안센 (신부, 설립자, 1837~1909)
1월 16일	성 마르첼로(교황, 순교자, 308년), 성녀 프리스킬라(부인, 98년경) 성 호노라토(주교, 350~429년)
1월 17일	성녀 로셀리나(동정녀, 1263~1329년), 성 메룰로(수도자, 590년), 성 솔피치오(주교, 647년) 성녀 밀드지타(공주, 수녀, 676년), 성 안토니오(수도원장, 수도자, 251~356년) 성 제눌포(주교, 250년)

■ 재유럽 사제연수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2014년 12월 30일(화) 프랑스 루르드 교구장 니콜라 대주교를 예방하시고, 29일(월)부터 2015년 1월 2일(금)까지 루르드에서 열린 재유럽 사제연수에 참석하시어 사목현황을 보고받고 격려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2주간 2015. 1. 11~17.>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창세32-36장	37-40장	41-43장	44-47장	48-50장	탈출1-4장	5-8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창세기 후반부는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가족들의 이집트 정착을 다루면서 탈출기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루고 있다.

탈출기: 탈출기의 구조 역시 창세기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반부 1-18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옮겨짐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이집트 노예 생활 모습과 거기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 19-40장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장소는 시나이 산 한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탈출기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지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느님께 대한 앎”이다.

문의_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양의 해인 만큼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2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13일(화) 14:0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2일(월) 11:00 월성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14일(수)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12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15일(목)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12일(월) 11:00 신평성당	바뇌성모발현 82주년기념미사	1월 15일(목) 19:30 삼덕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17일(토) 10:00 월성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2일(월) 11:30 범어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월 17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날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지/청원소)
 문의: 성소담당수사, (010)3800-1579

2대리구 렉시오디비나 성서 모임
 일시: 2.2(매주 월)부터 10:00 / 19:30
 장소: 수성성당 교육관
 강사: 박성대 요한 신부(2대리구교구장대리)
 교육비: 3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2대리구, 743-7010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1.13(화)~14(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제주 자연 피정
 기간: 2.25~28 / 3.7~10 / 3.18~21
 4.6~9 / 4.12~15 / 4.17~20
 문의: 성이시돌괴정센터, (02)773-1455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요일 23:00~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20:30
 수성구청 앞 21:00
 문의: 차량담당자, (010)5529-3186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사제들과 함께하는 평화, 성지순례,
 매일미사, 올레길, 오름 트레킹, 역사탐방
 기간: 1.25~27 / 2.5~7 / 2.27~3.1
 3.14~16 / 3.23~25 / 3.29~31
 문의: (02)773-1463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16(금) 23:00~18(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카타리나, (010)4515-1114

교육 | 모집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접수: 1.31(토)까지/uus@pauline.or.kr
 과정: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우편과 이러닝학습(동영상 강의)
 원서: <http://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0840~2(이러닝)

2015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0(월)~2.6(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등
 각종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하는 순례
 주옥같은 일본성지순례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눈물나는 순교영성의 중국성지순례
 장소: 상해, 소주(주문모,김대건,최양업)
 문의: 성모승천수도회, (010)4239-1929

“아름다운 건강의 약속”
 더 편안 내과가 함께 합니다.
더 편안한 내과
 부설: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야교보) ☎ 053)651-7585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구스다운 이불
 국내/국제특허
 친구류 / 수예품 제조
 성당 방식
 레이방식 / 장의자 방식
 흡소필 / 단체 사은품
CARITAS
 안젤라 권순화
 010-9357-9988
 안드레아 이동환
 010-3506-2555
HAN KWANG
 한광

작고 행복한 결혼식
 하우스 웨딩 전문
메종 보네르
 서현희 (헬레나)
 ☎ 053)421-3447
<http://www.maison-bonheur.co.kr>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야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서부영남내과
 영남의과대학교수 원장 김 영 진 (안드레아)
 ☎ 053)656-7533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서 성 철(베드로)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성철(베드로)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에너타워 4F

천주교대구대교구

2015 사제부제서품

부제서품식: 1.20(화) 10:00
 사제서품식: 1.21(수) 10:00
 장소: 성 김대건 기념관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1.26(월)~28(수)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고3·대학·일반: 1.28(수)~30(금)
 장소: 한티 피정의 집
 (참가 학년은 2015학년도 기준,
 등록된 예비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 사무실
 마감: 1.11(일)

행사 | 모임

1월 가나강좌

일시: 1.18(일) 10:00~17:30(9:30 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12(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일본 나가사키교구 신부 초청 공개 특강

일시: 1.17(토) 13:30
 장소: 대신학원 강의동 지하1층 강의실
 주제: 나가사키 한국인 순교자
 강사: 후루스 신부, 렌조 신부(통역있음)
 주최: 가톨릭학술원, (010)3933-5875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11(일) 15:00 / 회비: 1만 원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더 행복한 부부를 위한 ME주말

328차: 1.23(금)~25(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모자녀 행복 프로그램

기간: 2.25(수) 16:00~26(목) 14:00
 회비: 2인 10만 원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2015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일반, 특수대학원(문테소리대학원신설)
 접수기간: 1.6(화)~14(수)
 문의: 850-3583(일반) 660-5512~3(특수)
<http://www.cu.ac.kr>

2015년 학산야간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월~2월 / 무료수업
 장소: 학산종합사회복지관(달서구 월성동)
 내용: 검정고시준비(주간·야간반)
 문의: 634-7230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대상: 만15~26세 남성, 1년(계계가공종합과정,00명)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교육비기숙비무료, 수당지급,
 고검반운영, 방통고편입학지도, 취업
 알선, 면접전형 / (02)828-3600

채용 | 안내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1.19(월)~20(화)
 접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문의: 660-5161 / mica@cu.ac.kr
<http://www.dgsunmok.or.kr> 참조

청도성모유치원 정교사, 방과후전담교사 채용

정교사 2명: 유치원 2급 정교사 소지자
 방과후 전담교사 1명(시간조절 가능)
 문의: (010)4441-6043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각 본당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사랑을
 전해주세요. 헌옷, 가전, 기타제품 등
 해외난민지원사업 및 어려운 이웃을 위
 해 사용되오니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흠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피부질환 | 아토피 | 알레르기 | 시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당맛골 3번출구 T.053) 651-8800**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발아정형외과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새해안 청정여행 명품 김
광천이조맛김
 김 · 건어물 · 젓갈용 판매
 성전김(가급) 미련 및 바지회
 선모회 · 자모회 등 각종 단체 기증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

이시우 신경
<http://척추외과.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최후수술 5,000례 시술)
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베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흉터 · 주름 · 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크업 · 헤어디자인
 김 대 현(프란치스코)
053)424-7777 | 010-2112-8236

본도의 한방을 기쁨이
 내일을 만드는
 가치의 에너지가 됩니다!
(주)본도 **충북을저하는사람들**
 본도서당/주요수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053)623-4600, 656-2500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